<지원동기, 대학생활, 성격? >

교육: 나의 큰 가치관 (지원동기?)

저는 어릴 적 꿈이 교육부총리일 정도로 교육분야에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였고, 한국 교육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도 계속했습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은 저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선진 교육시스템을 경험하고 싶어 미국학부에 진학하게 되었고, 지식을 전달하는 일이 좋아 학계를 업으로 삼는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자격증을 저의 학문 증진에 도움이 되게 쓰고 싶어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학부생활: 학문에 대한 열정과 갈증

(대학생활? 지원동기? 성격?)

미국학부에 진학하면서, 저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4년의 대학생활을 온전히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남들보다 짧게 다니는 만큼 점수와 난이도 상관없이 원하는 과목들은 최대한 듣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회과학의 모든 분야들을 포괄해서 배우고 싶어 사회학과 법률학을 복수전공하게 되었고, 힘들었지만 전공과목 위주로만 수업들을 수강했습니다. 매 학기 남들보다 더 많은 수업들을 수강해도 학부생활에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원했던 공부를 제가 선택해서 듣는다는 뿌듯함 덕분이었습니다. 그 결과, 등수가 없는 시스템에서도 우수한 학점으로 인정받으며 1년 조기졸업 할 수 있었습니다.

학부생활을 하는 동안 공부 외에도 여러 활동들을 했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어 교내 학생지도센터에 보조강사로 일했습니다. 보조강사로 일하면서 사회학개론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외 식 보충 수업을 지도했습니다. 대학생이 또래 대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어색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이와 상관없이 서로를 존중하는 환경이 더욱 잘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면서 어려운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렀습니다.

또한 교내밴드 동아리를 했습니다. 밴드에서 드러머로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기적으로 공연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긴장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만족스러운 학부생활을 보냈지만, 조기졸업으로 인해 4학년에게만 주어지는 학사논문 작성 기회를 잡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4학년이 될 수 없어 등재 조건 없는 연구논문 작성에 그쳤고, 이러한 아쉬움 때문에 대학원에 진학해 공부를 더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경찰폭력: 결국 공권력 문제 (지원동기?)

“형벌은 국가가 시민에게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폭력수단이다”

(정치사회학 얘기도 녹여내기)

(순서 상 일반대학원 얘기 전)

일반대학원: 형사실무의 중요성을 느끼다

(지원동기)

아쉬웠던 법률공부를 더 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일반대학원 법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첫 학기 개별범죄연구 수업에서 친족상도례에 대한 대법원판례를 평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판례를 비판하는 학계 다수의 입장에 맞춰 판례를 평석했습니다.

그러나 제 평석은 조문의 용어구성에 초점을 둔 학계의 입장에 맞춰 평석하느라 왜 그러한 판결이 나왔는지 실무 입장에서 생각해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재판은 법이 아닌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조문만을 보고 사례 및 판결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결정적이었던 건 피해금액인 15만원이었는데, 15만원 때문에 징역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냐는 교수님의 질문에 저는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기록 너머에 있는 사람까지 보는 것이 수사기관 및 법조인의 역할이며, 기계적으로만 법을 적용하자는 주장은 오히려 형평성을 위협하는 주장이다라는 총평과 함께, 저의 평석은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험은 실무, 특히 형사실무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법학학계 진출이 저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실무에 대한 이해 없이 탁상공부만 하는 것은 오히려 저의 학문적 식견을 좁히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법은 실생활에서 집행이 되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실무 또한 법을 집행하는 실무 및 집행대상인 피고인을 변호하는 실무모두 경험하는 것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 판단했고, 학계진출에 앞서 국선변호인 및 경감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대: 고향으로 돌아오다 (지원동기)

제주대는 최근까지 검사와 군법무관을 배출한 경험이 있는 학교로써, 제가 생각하는 진로를 준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제주도는 제 친가가 있는 곳이자 저에게 고향이나 다름없는 곳입니다. 따라서 육지생활, 더 나아가 타지생활을 오랜 기간 동안 해왔던 저에게, 제주대는 고향에 내려와 가족들 곁에서 법학공부를 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거기에 풍부한 해외경험으로 인한 국제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제 자신이 제주대가 목표하는 국제화 특성에 최적화된 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제주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제주대만을 지원했습니다.

(복수지원을 언급해야 하나?)

<졸업계획> (경감에 대한 조사 더)

졸업 후 변호사시험을 바로 합격할 것입니다. 변호사시험을 본 후 5월에 군복무관 훈련소에 입소해 9주간의 교육을 받고 단기 군법무관으로 군 복무를 할 예정입니다. 공익법무관도 할 수 있지만, 군생활을 통해 한국사회에 대한 밀도 있는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유학생활로 인해 상대적으로 한국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한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한된 상황이지만 군법무관으로서 법제, 군 검사, 군법교육 등 여러 보직을 하면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을 것입니다.

군 전역 후 국선변호인으로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국선변호인만큼 일의 수월성 및 승소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형사사건만 집중적으로 변호하는 직업은 없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실무 경험도 쌓으면서 형벌의 집행대상 편에서 그들을 위한 변호를 하고 싶습니다.

(내용추가 및 문장 수정)

국선변호인으로 최대한 일할 수 있는 6년을 채운 후 경감특채에 지원할 것입니다. 경감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업무보다 고소, 고발을 접수하여 범죄의 여부를 가려내는 업무를 주로 담당합니다. 범죄성립 여부를 다퉈야 했던 형사변호인의 업무경험을 경감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인 목표는 경찰이지만, 검사도 기회가 되면 도전하고 싶습니다. 초기수사는 경찰업무의 영역이지만 기소라는 중요한 법 집행업무는 검사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하던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되 그것에 매몰되어 인간미를 잃지 않는 법조인이 될 것입니다.

(How? 더 설득력 있게)

경찰 또는 검사로 근무하면 여러 지역으로 인사이동 해야 합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근무하게 되면 00대에서 공부하느라 끝내지 못했던 학술석사과정에 복학해 해당 과정을 마칠 것입니다.

석사과정을 마친 후 몇 년 더 근무한 후 박사과정 진학을 위해 휴직을 할 것입니다.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일반대학원 학술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박사학위를 마친 후에는 국내로 돌아와 교수로 일하면서 제가 공부했던 것들과 법조인으로 일했던 경험을 미래의 법학도들에게 전수하고 싶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형벌집행 실무경험 및 학술연구경험을 두루 갖춘 법률가, 후배양성에 힘을 기울이는 법률가가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학업계획서>

입학 전 일반대학원 (너무 길어?)

지난 학기에 일반대학원 법학과에 입학하여 구성요건, 재산권범죄연구, 수사절차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강하면서 형법총론을 비롯한 형법의 기본적인 이론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에는 형사소송법을 수강하면서 형사절차법에 관한 기본을 배우고 있습니다. 더불어 헌법재판 수업과 민사소송법을 수강하면서 민사와 헌법소송절차들에 관한 법들도 배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업들을 수강하면서 입학 전에 변호사시험에 출제되는 형사법 및 절차법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익힐 것입니다. 제주대 또한 각 법의 기본적인 이론들을 먼저 배우고 해당 법의 절차법을 배우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미리 경험함으로써 제주대에서의 공부 및 변호사시험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선행 (써야 하나?)

일반대학원 공부 외에 개인적으로 김준호 교수님의 민법강의라는 책을 1회독을 해서 입학 후 수강해야 할 민법1수업 및 신입생 학력 평가시험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가 12월 첫째 주에 종강하는 만큼 1회독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처음3학기: 내실을 다지는 과정

변호사시험 합격을 3년 과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정진하겠습니다. 첫 학기에는 필수과목들만 충실히 수강해서 법학공부에 대한 적응 및 학점관리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에 있는 법조윤리시험을 한번에 통과하겠습니다.

2학기에는 필수과목인 공법, 민법, 회사법, 국제법과 더불어 선택과목으로 형법과 국제거래법을 수강하겠습니다. 국제법은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이자 제주대의 특성화 분야입니다. 따라서 국제거래법을 수강하여 변호사시험의 국제법 분야에 더욱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1학기에는 필수과목인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외에 행형법과 국가작용법, 그리고 공법을 수강하겠습니다. 더불어 민사분야 선택과목으로 친족 상속 법을 듣겠습니다. 법정실무과목 대신 전문심화과목들을 선택과목으로 수강하여 실무 전에 필요한 법학 공부의 내실을 다지겠습니다. 또한 단기군법무관 우선 지원 신청을 해서 졸업 후 군법무관으로 병역의무 및 실무경험을 쌓을 계획을 실현하는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3학기: 실무 중심. (조사 더 필요)

2학년 2학기에는 법문서작성 외에 경찰실무를 들으면서 수사절차 및 형사소송의 실무 경험을 쌓겠습니다. 또한 형사에만 치우치지 않기 위해 민사판례연구 수업을 들으면서 민사실무까지는 아니더라도 민사법 적용에 대한 이해를 넓힐 것입니다.

3학년 1학기에는 필수과목인 모의재판과 법률실습을 들으며 사람들과 협업능력을 기르겠습니다. 또한 형사변호사실무 수업을 들으면……?